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사할린 주(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

<표지 > 사할린-1 프로젝트



<표지 2> 모네론 섬



<표지 3> 사할린 섬의 안톤 체호프 동상



<표지 4> 사할린 섬 아니바 곶



< 목 차 >

서문

I. 종합개관

1. 개관
 - 1.1 위치
 - 1.2 일반개황
2. 자연환경
 - 2.1 지리
 - 2.2 기후와 식생
 - 2.3 주요 자원
3. 주 상징
 - 3.1 주 기
 - 3.2 주 문장

II. 상세개관

1. 역사
 - 1.1. 형성
 - 1.2. 발전
2. 정치
 - 2.1 행정부
 - 2.2 주 의회
 - 2.3 대통령 선거(2018년)
 - 2.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2012년)
3. 경제
 - 3.1 경제 개관
 - 3.2 지역 총생산(GRP)
 - 3.3 주요 산업
 - 3.4 투자현황과 대외교역량
4. 사회
 - 4.1 인구 및 민족 구성
 - 4.2 행정구역
 - 4.3 교육
5. 문화
 - 5.1 문화개관

5.2 문화유적과 관광지

6. 한국과의 관계

6.1 한국과 사할린 주와의 경제교류

6.2 사할린 주의 고려인

6.3 한국과 사할린 주의 교류 현황

<참고문헌>

<사진 출처>

<표 출처>

<서문>

사할린 주의 역사는 한 마디로 다사다난하다. 이곳에 인간이 정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삼십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지역 여러 섬들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도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19세기 이후 일본의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이 영유권을 놓고 다툰 나머지 1855년 러·일간의 조약이 체결되면서 사할린은 양국의 공동 소유가 되었고, 쿠릴 열도에서는 프리자 해협이 양국의 경계가 되었다. 1875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사할린 섬 전체와 그 부속 도서들이 러시아 영토로 인정되어 러·일 국경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말기인 1905년 7월에 일본군이 사할린 섬에 진주하면서 남사할린 섬을 양도받았다(포츠머드 조약).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소련이 이 지역을 점유하였다. 소련은 1946년 이 지역의 병합을 선언했고, 1947년에 남사할린 섬과 쿠릴열도를 사할린 주로 편입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문 1> 1905년 8월 23일 포츠머드 조약 체결



<서문 2> 포츠머드 조약 러시아 측 대표단(비테 수상과 로잔 남작이 앉아 있다)



사할린 주는 홋카이도 섬 근방에서 캄чат카 반도까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위치한다. 면적은 8만 7100km²로 한국의 약 88%, 러시아 전체의 0.8%를 점한다.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섬으로 이루어진 주(州)인 사할린 주는 사할린 섬과 쿠릴열도를 근간으로 한다. 사할린 섬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오호츠크 해와 동해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으로 948km에 걸쳐 뻗어 있다. 섬의 너비는 가장 넓은 곳이 160km, 가장 좁은 곳이 30km이다. 사할린 섬은 대부분이 산간 지형이다. 쿠릴 열도는 태평양 북서부 캄чат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이다. 5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태평양과 오호츠크 해를 나누는 경계가 된다. 전체 면적은 거의 15,600km²에 이른다.

<서문 3> 사할린 섬



지리적 특성상 사할린 주는 어업이 발달해 있다. 러시아 최대의 어장으로서 연어를 비롯하여 청어, 가자미, 고등어, 대구, 넙치 등이 풍부하게 잡힌다. 그런데 최근에는 석유, 가스, 석탄 등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유전 및 가스 개발과 관련된 에너지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사할린 지역은 2007년부터 지역 내 자원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사할린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렇듯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면서 지역 주민의 소득은 증대했으며, 그 결과 사회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등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사할린 주는 러시아 전체에서 1인당 지역총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현재 사할린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힘을 경주하고 있으며, 관광업과 어업 등의 발전에도 역점을 두고 사할린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서문 4> 사할린에서의 조업 풍경



<서문 5> 사할린에서의 조업 풍경



사할린 주와 한국의 관계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으로 인해 약 15만 명이 강제동원 되었다.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한 한인이 약 3만 5000명이다. 이렇듯 슬픈 역사를 뒤로 하고 우리나라는 한인 1세대 영구 귀국사업을 벌였으며,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대우건설과 한국가스공사 등이 건설과 에너지 확보의 중요 기지로 사할린 주에 주목하고 있다.

1. 종합개관

1. 개관

1.1 위치

사할린 주(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의 면적은 8만 7100km²로 한국의 약 88%, 러시아 전체의 0.8%에 달한다.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섬으로 형성된 주이다. 대륙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네벨스키 해협은 그 거리가 7.5km에 달한다. 사할린 주는 홋카이도 섬 근방에서 캄чат카 반도까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위치한다. 대군도(大群島)는 총 길이가 약 1,200km이고 파라무시르, 쿠나시르, 이투루프, 우루프 등 총 3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군도(小群島)는 총 길이가 105km이고 시코탄 등 6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할린 주는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를 근간으로 하며 극동연방관구에 속해 있다. 라페루즈 해협, 오호츠크 해를 통해 일본의 홋카이도와 접해 있다.

<그림 1> 사할린 주 위치



1.2 일반 개황

<표 1> 사할린 주 개황

공식명칭	사할린 주(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주도(州都)	유즈노-사할린스크 시(16만 명)
면적	87,100km ² (한국의 약 88%, 러시아 전체의 0.8%)

소속 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
경제지구	극동경제지구
성립일	1947년 1월 2일
기후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가 병존 1월 평균 -13.8°C, 7월 평균 +15.5°C
인구	51만 명(2010년 러시아 인구조사) 487,344명(2017년 자체 조사)
민족구성	러시아인(84%), 한인(5.4%, 약 3만 명), 우크라이나인(4%)
공용어	러시아어
주지사	올레그 코제먀코(Олег Кожемяко)
지역총생산 (GRP)	1조 1,738억 루블(2019년)
주요산업	석유·가스 개발, 임업, 수산업, 광업(석탄), 전력에너지
주요자원	화석자원 (석유, 가스), 석탄, 화학원료, 시멘트 원료
주요도시	코르사코프(3.8만 명), 홀름스크(3.7만 명)
행정구역 구성	4개 시, 17개 군

2. 자연환경

2.1 지리

<그림 2>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의 지도



사할린 주의 전체 면적은 87,101km²이다. 이 중에서 사할린 섬이 76,400km², 쿠릴 열도(전체)가 15,600km²이다.

사할린 섬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오호츠크 해와 동해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으로 948km에 걸쳐 뻗어 있다. 섬의 너비는 가장 넓은 곳이 160km, 가장 좁은 곳

이 30km이다. 사할린 지역은 2/3가 산간 지형이다. 가장 높은 산은 로파틴 산으로 해발 1,609m에 이른다. 섬의 북부는 늪지대로 침엽수림으로 뒤덮여 있다. 섬의 중앙과 남쪽에 위치한 산들은 아얀 가문비나무, 전나무, 자작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으며, 그 아래 관목 덤불에는 작은 시베리아 소나무와 쿠릴 대나무가 자란다. 또한 두 곳의 점토화산과 60,000개가 넘는 강이 있다. 이들 중 가장 큰 것이 팀 강과 포로나이 강이다. 호수는 약 16,120개에 이르며, 그 중에서도 석호인 투나이차(174km²)와 넵스코예(178km²)가 가장 크다.

<그림 3> 사할린 섬



쿠릴 열도는 태평양 북서부 캄чат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이다. 5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나누는 경계가 된다. 남북으로 1,200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거의 15,600km²에 이른다. 높이는 대체로 500~1,000m이다. 쿠릴 열도에는 약 160개의 화산이 있으며 40여 개 정도가 활화산이다. 가장 높은 산은 아틀라소프 섬의 알라이드로 해발 2,339m이다. 강의 수는 4,000개에 이르며 수많은 분화호가 있다. 러시아 최고 폭포인 일리야 무로메츠 폭포가 이투릅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는 141m이다.

<그림 4> 쿠릴 열도의 모습



2.2 기후와 식생

사할린 주에는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가 병존한다. 기온은 1월 평균 -13.8°C , 7월 평균 $+15.5^{\circ}\text{C}$ 이다.

사할린 섬은 온대성 몬순 기후이다. 1월의 평균 기온은 남부가 -6°C , 북부는 -24°C 이다. 최저 기록 온도는 -54°C 도이다. 8월 평균 기온은 남부가 $+19^{\circ}\text{C}$, 북부가 $+10^{\circ}\text{C}$ 이다. 최고 기록 온도는 $+38^{\circ}\text{C}$ 이다. 연간 강수량은 600~1,200mm이다. 산간지대 강설량은 5m 이상에 이르며 이러한 기후 조건으로 눈사태가 빈번하다. 사할린 북부 지방과 산간지방에는 10월부터 5월까지 강풍이 계속된다. 남부에는 11월에서 4월까지 강풍이 분다. 여름에는 태풍이 잦고 불과 24시간 동안 기록된 강수량이 최고 220mm에 이르기도 하였다. 쿠릴 열도의 기후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이나 여름철 더위가 없다. 여름에는 오히려 비와 안개가 잦은 편이다. 전체 연간 강수량은 1,000~1,400mm이고 강풍은 허리케인 수준으로 초속 40m 이상이다.

사할린 섬의 대부분이 침엽수림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풀로 뒤덮여 있다. 사할린 주의 산림은 690만ha로 전체 영토의 87%를 차지한다. 침엽수림이 특히 많다. 사할린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산림자원 분야의 핵심지역이다. 사할린 숲에는 족제비, 여우, 밍크, 다람쥐, 산토끼, 곰과 사슴이 서식하고 있다. 과실, 약초와 고사리 등이 풍부하다.

<그림 5> 사할린 주의 야생 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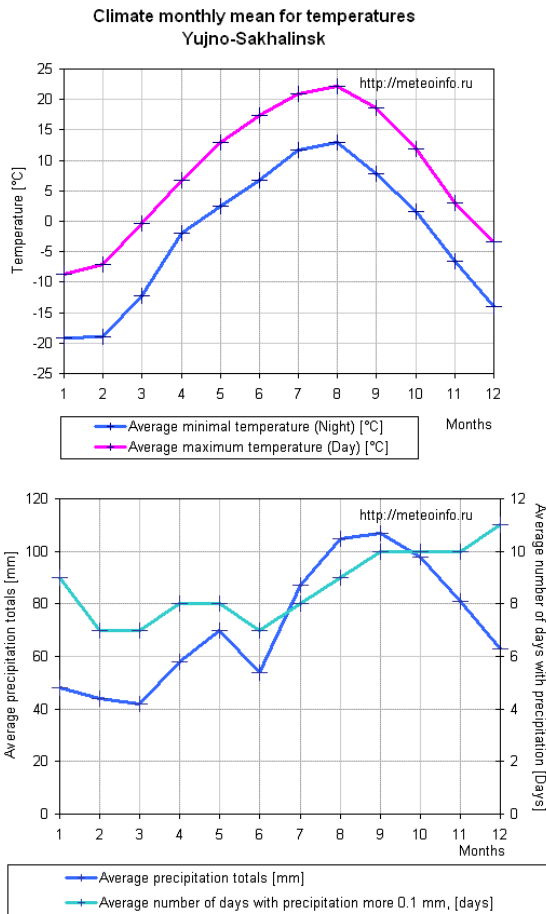


사할린 연안을 휘감아 도는 조류와 쿠릴 열도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수산자원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 최대의 어장이다.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 어디서나 즐겨 먹는 연어를 비롯하여 청어, 가자미, 고등어, 대구, 넙치 등이며 주로 잡힌다. 사할린 대륙붕의 갯벌이나 쿠릴 열도는 게, 새우, 조개류와 홍합을 어획하기 좋은 장소이다. 하절기에 타타르 해협으로 유입되는 오징어 또한 대량으로 잡히는 어종이다. 어패류도 많이 채취되어 외국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림 6> 쿠릴 열도의 강치 군락지



<그림 7>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월평균 기온 변화



2.3 주요 자원

사할린 주의 주요 광물자원은 원유, 석탄, 이탄 등이다. 원유는 고옥탄가의 연료와 윤활유 생산에 적합하다. 농축액은 디젤연료, 가솔린, 항공기용 등유 제조에 적합하다.

대륙붕개발 프로젝트 ‘사할린-2’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신(新)프로젝트 중 하나로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PSAs))에 따라 만들어졌다. 프로젝트 수행자는 MITSUI(25%), Shell(25%), Marathon(37.5%), Mitsubishi(12.5%) 등이 합작 설립한 ‘사할린 에너지회사(Sakhalin Energy Company)’이다.

석탄은 60곳의 채탄장이 있다. 석탄 등급은 천차만별인데, 대부분 품질이 좋다. 화공용과 연료오일 제조용으로 적합한 석탄층도 있다. 이탄은 200곳의 채탄장이 있다. 화학비료나 석유화학제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의 흡수제 제작 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3. 주 상징

3.1 주 기

사할린 주 기는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색 바탕에 중앙에는 사할린 주를 구성하는 사할린 섬과 쿠릴열도의 윤곽이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는 45도 각도로 잇닿아 있는 모습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섬의 윗부분은 기(旗)의 1/8 지점에, 섬의 아랫부분은 기의 아래로부터 1/8 지점에 위치한다. 정확하게 계산하여 배치했다. 주 기의 가로-세로 비율은 3:2이다. 사할린 주 기는 1997년 4월 25일 채택되었다. 주 기를 디자인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고밀렙스키(Владимир Е. Гомилевский)이다.

<그림 8> 사할린 주 기



3.2 주 문장

사할린 주의 문장은 은빛 방패에 푸른 기둥이 그려져 있다. 푸른 기둥에는 은빛 파도 위를 오른쪽 방향으로 항해해 가는 17세기 러시아의 카자크 선(船)이 묘사되어 있다. 카자크 선 양편에는 검은색 분화구를 통해 붉은색 불기둥을 내뿜는 화산이 그려져 있다. 사할린 주 문장은 1997년 4월 25일 채택되었다.

<그림 9> 사할린 주 문장



II. 상세개관

1. 역사

1.1. 형성

‘사할린’이란 지명은 13세기 몽골인들이 붙인 이름으로 ‘검은 강으로 들어가는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며, 아이누인 말로는 ‘자작나무의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할린 주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 초기인 약 250,000~300,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사할린 섬에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기 구석기 시대와 초기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오곤키(Огоньки)-5, 소콜(Сокол), 올림피아(Олимпия)-5, 포레치예(Поречье)-4, 슬라브나야(Славная)-4, 슬라브나야(Славная)-5, 푸가체보(Пугачево)-1 등을 꼽을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선사시대의 유적이 사할린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림 10> 사할린 섬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을 발굴하는 모습



그러나 태평양으로 향한 러시아의 최초 탐험가들의 노정이 막 시작되던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할린 주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 당시에 쿠릴 열도와 남사할린 섬에는 아ynu족들이 살고 있었고 사할린 섬의 북쪽에는 니프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유럽인들이 사할린을 발견한 것도 17세기이다. 쿠릴 열도가 유럽에 알려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러시아 개척자 아틀라소프(B. B. Атласов, 1661/1664년 경~1711년)가 1697년에 작성한 보고서였다. 19세기까지도 이 섬들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도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1.2. 발전

19세기 이후로 일본의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이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지만, 1855년에 일본의 시모다 시(市)에서 우호와 국경에 대한 러·일간의 조약이 체결되었고 양국 외교관계의 시초가 되었다. 그 조약에 따라서 사할린은 양국의 공동 소유로 남겨졌고, 쿠릴 열도에서는 프리자 해협이 경계가 되었다. 1875년 러·일 조약으로 사할린 섬 전체와 그 부속 도서들이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되어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러일전쟁 말기인 1905년 7월에 일본군이 사할린 섬에 진주했다. 그리고 포츠머드 조약으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남사할린 섬을 양도받았다. 당시 북위 50도선 이북은 러시아령이었지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혼란에 빠지자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으로 잠시 일본군에게 사할린 섬 전체가 장악되기도 했다.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붕괴한 뒤 탄생한 소련은 당시 사할린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사할린 섬의 석유개발권을 일본에게 양도했다. 또 레닌은 사할린 영유를 로마노프 왕조의 제국주의에 의한 불법 점유라고 주장했고, 일본도 사할린 섬 전체를 반환받으려 했다. 하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소·일 중립조약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1945년 8월 9일에 소련이 조약을 파기하고 일본에 선전포고한 다음 사할린 섬 전체와 쿠릴 열

도 전체를 소련 영토로 편입했다. 소련은 1946년에 이 지역의 병합을 선언했고, 1947년에 남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를 사할린 주로 편입했다.

소련은 사할린 전체를 소련 영토에 포함시키고 당시 사할린 섬의 일본 지명인 '가라후토(樺太)'의 중심지 '도요하라'를 유즈노사할린스크로 개칭했다. 나중에 사할린 주에 러시아인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일본인이 많았던 지역도 현재는 러시아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정치

사할린 주의 주요기관은 사할린 주 정부, 사할린 주 의회, 러시아 외무부 사할린 주 대표부이다.

2.1 행정부

사할린 주의 행정부는 주지사를 수장으로 하여 관료제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 주 법률에 따라 4년 임기로 사할린 주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주지사는 사할린 주의 최고 공직자로서 사할린 주 행정부를 지휘한다.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 주 두마(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직할 수 없고, 교육이나 학문과 같은 창작활동을 제외한 여타 유급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림 11> 현 사할린 주지사 발레리 리바렌코



현재 사할린 주지사는 리바렌코 발레리 이고레비치로 2018년 12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주 주지사 대행이었던 베라 조지에프나 슈체르비나를 프리모스크 크라이 주지사 대행으로 임명함에 따라 리바렌코 발레리 이고레비치가 주지사

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다.¹⁾ 2019년 9월 8일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56.15%의 득표율로 2019년 9월 12일 공식 취임했다. 주지사의 임기는 2024년까지이다. 1

그는 1960년 10월 19일 하르키우에서 태어나, 비행가 가정에서 자랐다. 할아버지는 항공기 수리공장에서 일했으며, 아버지는 군 조종사였다. 1983년 하르키우 항공 우주대학을 졸업했으며, 엔지니어의 길을 걷게 되었다.

2.2 주 의회

사할린 주 입법기관은 사할린 주 의회이다. 주 의회는 상설 최고입법기관이다. 주 의회 의원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주 의회는 2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 수는 주 의회가 정한다. 연방 법률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주 의회의 의원은 임기 동안 연방 국가두마 의원, 연방회의 의원이나 판사가 될 수 없고, 러시아연방의 국가직위, 사할린 주의 다른 국가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사할린 주 의회 의원은 교육, 학문, 다른 창작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급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사할린 주 의회 의원은 사할린 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할린 주 주민들에 의해 소환될 수 있다.

<표 2> 사할린 주 제 7대(2021년) 주 의회 구성

정당	대표자	의원 수
통합러시아당	알렉산드르 키슬리친(Александр Кислицин)	20
러시아연방공산당	유리 비골로프(Юрий Выголов)	3
러시아자유민주당	바실리 사드린(Василий Шадрин)	2
무소속	-	3

사할린 주의회는 총 28명이 있으며 정당별로는 통합러시아당 20명, 공산당 3명, 자민당 2석, 무소속 3명이다. 의회는 단일선거구제도 14명, 정당명부식 14명으로 선출된다.²⁾ 현 제 7차 사할린 두마는 2017년 9월 10일에 5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다음 사할린 주 두마 선거는 2022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주의회는 국가 건설 및 지방자치, 예산세무, 경제 개발, 사회정책, 스포츠 관광 및 청소년 정책, 자연 생태와 관련한 6개의 상임 위원회가 존재한다. 또한 의장, 부의장, 원내 3개 정당의 대표, 6개의 상임위원장이 주요 임원이다

<표 3> 사할린 주 제 7대(2016년) 의회 선거 주요 정당 득표율(%)

1) <http://kremlin.ru/acts/bank/43844>(검색일:2021.11.21)

2) https://ru.wikipedia.org/wiki/Сахалинская_областная_дума(검색일:2021.11.21)

기 호	1	2	3
정 당	통합러시아당	러시아연방공산당	러시아자유민주당
러시아 전체	54.20	13.34	13.14
사할린 주(2016년)	43,99	15,79	20,9
사할린 주 (2011년)	41.91	23.43	13.14

<그림 12> 사할린 주 의회 의장 알렉세이 벨릭(Алексей Белик)



사할린 주 의회 의장은 통합러시아당 소속의 블라디미르 예프레모프이다. 그는 1952년 사할린 주 아넵스키 군의 타라나이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하바롭스크공대와 하바롭스크고등공산당학교를 졸업하였다.

예프레모프는 1979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집행부의 홍보부에서 일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활발하게 정치력을 발휘해나갔다. 그 후 1988년에는 주 집행부의 경제계획부를 맡게 되었다. 1994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사할린모르네프테가스’의 사장이 되었고 2000년에는 극동의 ‘로스네프티’ 석유회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2002년 7월 사할린 주 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004년 10월 예프레모프는 다시 사할린 주 의회의 의장과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년에는 3선에, 2012년에는 4선에 성공하였다. 사할린 주 의회에서 통합러시아당 소속이다.

<그림 13> 사할린 주의 투표 장면



2.3 대통령 선거(2018년)

2018년 3월 18일 시행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타타르스탄 공화국 주민 총 374,29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중 실제로 행사한 표는 229,055표이다. 공화국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66.92%로 압도적이고, 이는 러시아연방 전체에서의 푸틴 득표율 76.69%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반면 파벨 그루디닌은 17.99%로 연방 평균인 11.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도 8.76%으로 연방 평균인 5.65%에 비해 다소 높다. 사할린 주 총 투표율은 61.20%로 러시아 연방 67.50%보다 낮았으며 사표율은 연방 전체 1.08%보다 다소 높은 1.72%를 기록하였다. 극동연방 관구에 속하고 사할린 주와 인접한 하바롭스크 변경의 푸틴 지지율은 65.78%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사할린 주에는 러시아연방 차원의 하나의 선거구가 있다. 2012년 3월 4일 실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에는 유권자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푸틴이 투표 참여 유권자의 63.6%의 지지를 얻었다.

<표 4>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득표율

정 당	후보자	사할린주	러시아 연방
통합러시아당	블라디미르 푸틴	66.92%	76.69%
러시아 공산당	파벨 그루디닌	17.99%	11.77%
러시아 자민당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8.76%	5.65%
총 투표율	-	61.20%	67.50%
사표율	-	1.72%	1.08%

2.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2012년)

2012년 12월 4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일부 사할린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사할린 주 선거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돌린스크 시장 선거에서 비탈리 다닐로프(29세, 당시 시장대리)가 74.3%(8,555명)로 최다 득표하여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59.2%의 투표율을 보인 코르사코프 시장 선거에서 8,216(42.46%)표를 얻은 라다 무드로바가 재선되었다.

세베로-쿠릴스크 시장 후보로는 11명(모두 무소속)이 나섰는데 연금생활자인 알렉산드르 소모브(전 시장)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33.75%의 찬성표를 얻었다. 보슈냐코프 마을 행정수장으로는 이리나 가세트지노바 현 촌장이 재선(45.96%, 239표)되었다.

3. 경제

3.1 경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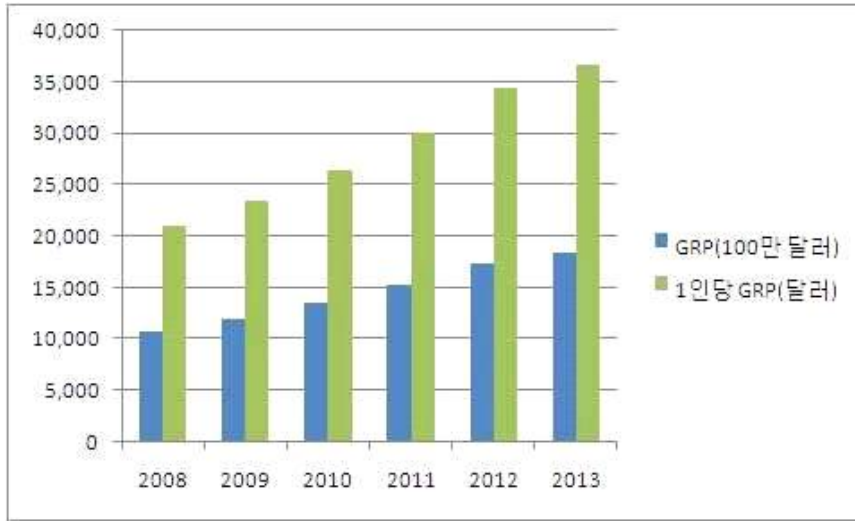
사할린 주는 8개의 연방관구 가운데 극동관구에 속하며, 12개의 러시아 경제지역 중에서는 극동경제지역에 속한다. 사할린 주는 극동경제지역에서 면적이 가장 크며, 지하자원 매장량이 가장 많다. 사할린 주가 지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대외경제관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실제 사할린 주와 관계를 갖지 않는 러시아 연방주체나 국가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

사할린 주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업이 발달한 편이며, 극동경제지역 전체로 볼 때 사할린 주가 담당하는 산업생산량 규모는 4위이다. 사할린 주는 에너지 산업과 식품산업이 특화되어 있으며, 석유가스 산업, 어업, 임업, 광업, 기계제조업과 금속가공업 등이 주력 산업분야이다.

3.2 지역총생산(GRP)

사할린 주의 2015년 지역총생산(GRP)은 9,991억 루블로 러시아 연방 주체들 중에서 21번째를 기록하였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4만 8천 루블이다.

<그림 14> 사할린 주 지역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생산 (2008년~2013년)



<표 5> 사할린 주 지역총생산(GRP) 추이(단위: 백만 루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역총생산	121,014.1	166,105.4	286,273.0	333,581.6	392,380.1	492,730.1
지역총생산 지수	108.8	112.2	126.3	95.7	110.9	108.0

3.3 주요 산업

사할린 주의 주요 산업은 석유·가스 개발, 임업, 수산업, 광업(석탄), 전력에너지 등이다. 이들 주요 산업분야가 지역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20%가 이들 주요 산업분야에 종사한다. 2012년 산업생산 지수는 96.6%에 달했다.

사할린 지역은 2007년부터 지역 내 자원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사할린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런 자원 개발에 착수하기 전인 2007년까지 사할린 지역은 어업(72%)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를 띠고 있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에너지산업을 중심(88.3%)으로 재편되었다(2011년 기준).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은 증대했으며, 그 결과 사회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등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사할린 정부는 석유, 가스 외에도 풍력이나 지력 등 에너지산업의 발전에 힘을 경주하고 있으며, 관광업과 어업 등의 발전에도 역점을 두고 사할린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사할린 섬의 육지에서는 석유 저장량의 95%이상이 채굴되었다.

1) 석유·가스 산업

석유·가스 산업은 사할린 주의 경제성장을 주도한다. 석유가스 산업은 산업 생산

의 총량에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할린 주 예산 조세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석유 채굴량은 1천8백3십만 톤(2015년의 107.2%)이었으며, 가스는 296억 입방미터(2015년의 103.2%)였다.

액화가스의 생산량(‘사할린-2’ 프로젝트)은 2016년 1천9십만 톤(2015년에는 1천8십만 톤)이었다. 석유와 석유제품의 소비자 발송은 2016년에 1천7백9십만 톤이었으며, 수출이 1천6백9십만 톤이고 ‘사할린-2’프로젝트의 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이 1천9십만 톤이었다. 공급지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이었다.

러시아 국내시장 소비자들을 위한 가스 공급은 ‘사할린-1’, ‘사할린-2’ 프로젝트, ‘사할린모프네프테가스’사나 ‘가즈프롬’사 등에 의해 실행되었고, 2016년에 46억 입방미터(2015년에는 50십억 입방미터)에 달하였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명단의 수는 5,400명(2016년 1월~11월)이며, 평균 임금(2016년 1월~11월)은 305,200 루블이다. 이 수치는 전년(2015년)대비 105.7% 성장한 것이다.

석유가스 채굴 기업들의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석유 채굴량은 1천7백4십만 톤, 가스는 2천8백4십만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사할린 대륙붕의 유전 및 가스전 현황

프로젝트	주요광구	개발(지분)참여사	비고
사할린-1	차이보(Chaivo) 아르크툰-다기(Arktun-Dagi)	엑슨모빌(ExxonMobil), SODECO(일본), 로즈네프트(Rosneft), ONGC(인도)	개발 중
사할린-2	키린(Kirin) 룬스크(Lunsk) 필툰 아스토흐(Piltun Astokh)	가즈프롬, 셸(Shell), 미쓰이(Mitsui), 미쓰비시(Mitsubishi)	개발 중
사할린-3	베닌스키(Veninsky), 아야시스키(Ayashsky),보스토 크노-오도프틴스키(Vostochno- Odoptinsky), 키린스킨(Kirinsky)	로즈네프트, SINOPEC 가즈프롬 가즈프롬 가즈프롬	2014년~2015년
사할린-4	자팏노-시밋토프스키(Zapadno- Shmidtovsky)	미분양	
사할린-5	카이간스코-바슈칸스키(Kaygansko-Vasjukansky)	로즈네프트, BP(British	2018년

	보스토크노-시밋토프스키(Vostochno-Shmidtovsky)	Petroleum)	
사할린-6	포그라니치니 탐사(Pogranichny Prospect)	페르로싸흐	육상유전

#사할린-1 프로젝트

사할린-1 프로젝트는 아돉투, 사이보, 아르쿤툰-다기 가스전을 기반으로 하며, 매장량은 485bcm이다. 프로젝트 컨소시엄은 ENL(30%), 사할린석유가스개발(30%), 로스네프트의 계열사 RN-아스트라(8.5%), 로스네프트-셸프(11.5%), ONGS 비데시(20%)의 지분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시행 이후 사할린-1프로젝트에서 생산된 가스 중 5bcm 규모가 하바롭스크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다.

사할린-1 프로젝트 시작 이후 러시아는 26억 달러의 로열티와 석유가스 지분을 받았으며, 사할린 주는 6억 5000만 달러의 생산 보너스를 받았다.

<그림 15> 사할린-1 프로젝트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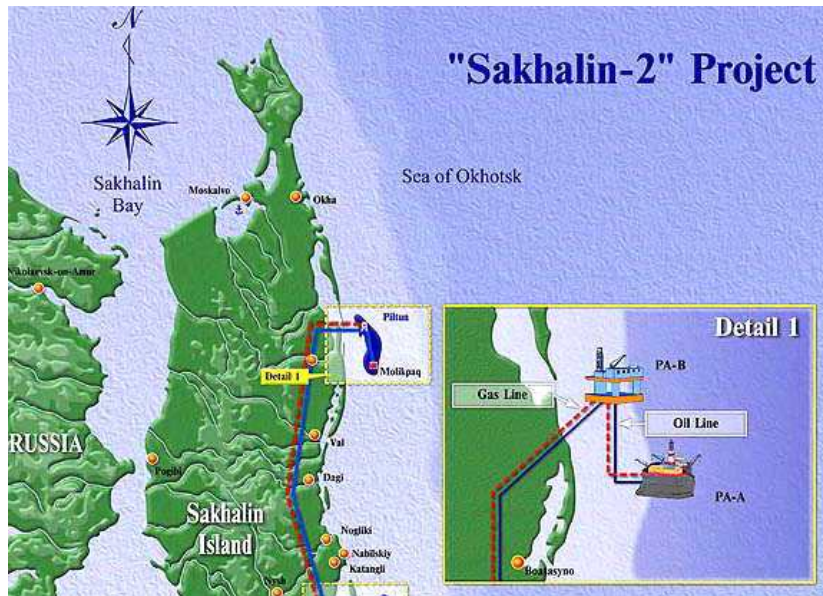
사할린-2 프로젝트

사할린-2 프로젝트는 필툰-아스톡스코예와 룬스코예 등의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을 목표로 한다. 635bcm의 천연가스와 1억7000만 톤의 원유와 가스 콘덴세이트가 매장되어 있다. 프로젝트 컨소시엄은 사할린석유가스개발(가스프롬)(50%+1주), Royal Dutch Shell plc(27.5%-1주), Mitsui&Co.Ltd(12.5%), Mitsubishi Corporation(10%)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가스의 일부는 본토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내 LNG 플랜트와 수출 터미널이

존재해 생산 및 가공 수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다. 2009년 3월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러시아 액화 천연가스 1차 물량이 일본으로 수출됐으며, 이후 한국, 중국, 대만, 쿠웨이트 등지로 수출 되었다. 사할린-2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현될 경우 세계 LNG 공급의 5%를 차지할 것이며, 전 세계 에너지공급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그림 16> 사할린-2 프로젝트



사할린-3 프로젝트

사할린-3 프로젝트는 키린스키, 보스토치노-아돏틴스키, 아야시스키 블록의 가스전을 포함하며 매장량은 1.4tcm으로 평가된다. 2009년 6월 가스프롬은 입찰 없이 키린스키, 보스토치노-아돏틴스키, 아야시스키 블록의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현재 지속적으로 탐사 및 시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확인 매장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할린-3 프로젝트에 의해 2014년부터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파이프라인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림 17> 사할린-1과 사할린-3 프로젝트



2) 임업·목재산업

사할린 주의 삼림 면적은 695만 ha이고, 목재 자원 보유량은 약 6억 2000만 m³이다. 사할린 주에는 85개의 목재 업체가 있고, 이곳에 1,600명이 종사한다. 2009년 9월에 채택한 “2020년까지의 사할린 주 임업발전전략”에 따라 종합임산물가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3) 광업

2010년 석탄 생산량은 367만 8천 톤으로 전년보다 19만 3천 톤이 증가했다. 주요 광업 분야의 주요 업체는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56%를 생산하고 있는 사할린우골과 전년보다 생산량이 2.7배 증가한 고르냐크-1, 생산량이 43만 톤에 달하는 오글레고르스크우골 등이다.

3.4 투자현황과 대외교역량

사할린 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할린 주 쿠릴 열도 개발에 러시아 정부가 현재까지 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12년 2월 28일 러시아 정부는 추가로 4억 5천만 달러의 지원하였다. 그동안 러·일 간의 정치, 외교 문제로 민간 투자가 기피되던 쿠릴 열도에 2012년 2월 17일 중국 다렌의 수산회사가 진

출함에 따라, 향후 쿠릴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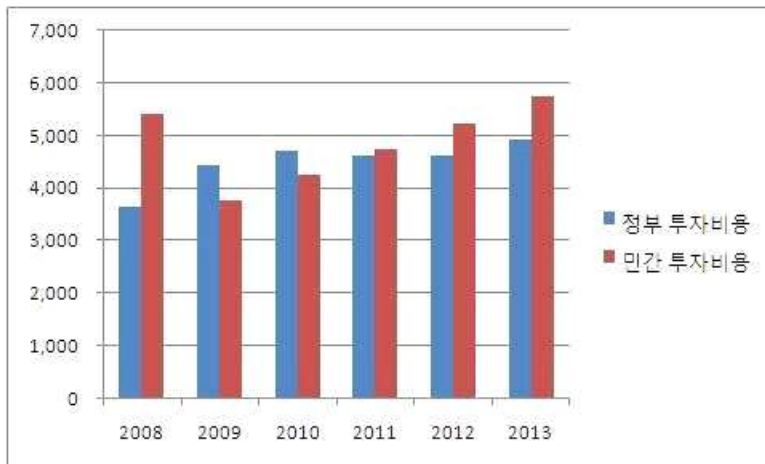
2010년 기준으로 사할린 주 외국인 투자액은 49억 8000만 달러였다. 그중 직접 투자액은 7억 8900만 달러이고, 기타 투자액은 41억 8650만 달러이다. 이는 2009년에 유입된 투자액 57억 7000만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유전·가스 개발에 집중되었으며,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영국, 일본 등이다.

사할린 주의 2016년 대외교역량은 약 107억 달러이다. 주요 교역국은 일본, 한국으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가스 등 광물성연료로 94%를 차지한다. 주요 수입품으로 자동차·장비·운송기기가 63%, 금속과 금속제품이 25%를 차지한다.

<표 7> 사할린 주의 대외교역량(단위: 백만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할린 주의 대외교역량	17174,9	17730,2	18208,7	18059,3	12677,3	10703,7
한국과의 대외교역량	7338,1	7295,5	6528,9	7278,6	4632,0	3825,7

<그림 18> 사할린 지역 투자 동향(단위 : 백만 USD)



4. 사회

4.1 인구나 민족 구성

사할린 주의 영토는 연방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 않지만(87,100km² 러연방내 0.51%, 85개 연방주체중 37위) 극동연방관구의 특성상 인구밀도가 낮은편이다. 2021년 1월 기준 현재의 총 인구는 485,621명으로 러시아 연방 85개 주체중 75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 밀도 또한 5.58명/km²로 다른 주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16에 나타나는 1989년, 2002년, 2010년의 전러시아 인구조사를 보면 사할린 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1989년 71만명이 넘는 인구가 2002년에 54만명으로 줄어들었고, 현재 사할린 인구는 48만명을 유지하

고 있는 중이다. 인구 중 82%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표 8> 인구변동 추이(2021년 1월 기준)

(단위: 천명)

연도	총인구	인구수		비중(%)	
		도시거주	농촌거주	도시거주	농촌거주
2018년	490.1	402.0	881.3	82.0	18.0
2019년	488.9	402.2	866.6	82.2	17.8
2020년	486.9	401.1	857.4	82.3	17.7
2021년	485.6	400.3	852.9	82.4	17.6

출처: http://ru.wikipedia.org/wiki/Сахалинская_область#cite_note-6(검색일:2021.11.22)

사할린 주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6% 정도 차지하며, 취업자 수는 동기간 94%를 상회한다.

<표 8> 사할린주 경제활동 인구

(단위: 천명)

연도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수	실업자 수
2017년	277.0(56.84%)	260.5(94.0%)	16.5(6.0%)
2018년	277.0(56.51%)	262.2(94.65%)	14.8(5.35%)
2019년	274.7(56.10%)	260.4(94.79%)	14.3(5.21%)
2020년	275.7(56.47%)	260.4(94.45%)	15.3(5.55%)

출처: <http://sahalinstat.gks.ru/storage/mediabank/toYNR441/Рабочая%20сила,%20занятые%20и%20безработные.htm>(검색일:2021.11.22.)

<표 9> 사할린 주의 민족 구성 변화

구분	1989년		2002년		2010년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전체	710,242	100%	546,695	100%	497,973	100%
러시아인	579,887	81.6%	460,778	84.3%	409,786	83.6%
한인	35,191	5.0%	29,592	5.4%	24,993	5.1%
우크라이나인	46,216	6.5%	21,831	4.0%	12,136	2.5%
타타르인	10,699	1.5%	6,830	1.2%	4,880	1.0%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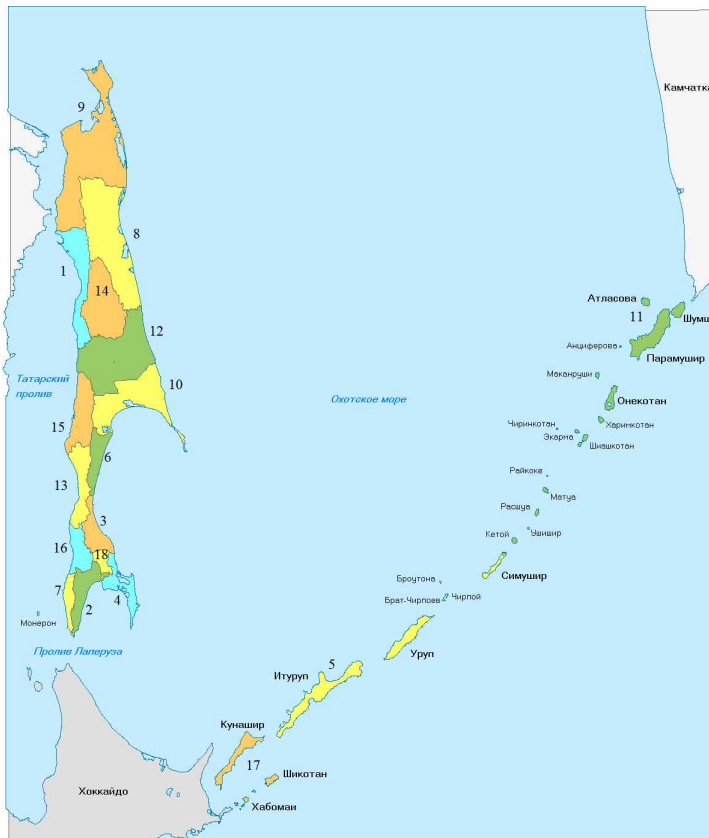
사할린주에는 120여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2010년 기준 83.6%가 러시아인이다. 그 밖에 한인 5.1%, 우크라이나인 2.5%, 타타르인 1.0%등이 있다. 사할린

지역의 한인 비율은 사할린 전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5%대 비율을 유지해왔다. 2010년 인구조사 결과 한인 수는 24,9993명으로 추정된다.

4.2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4개 시, 17개 군과 3개 읍,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9> 사할린 주의 행정 지역 지도



<표 10> 사할린 주 행정 구역

번호	지역명	인구(명) (2017년)	행정중심지
군(君)			
1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11,336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2	아니프스키(Анивский)	19,439	아니바(Анива)
3	돌린스키(Долинский)	24,254	돌린스크(Долинск)
4	코르사콥스키(Корсаковский)	40,398	코르사코프(Корсаков)

5	쿠릴스키(Курильский)	5,561	쿠릴스크(Курильск)
6	마카롭스키(Макаровский)	8,166	마카로프(Макаров)
7	네벨스키(Невельский)	15,716	네벨스크(Невельск)
8	노글린스키(Ноглинский)	11,328	노글리키(Ноглики)
9	오힌스키(Охинский)	22,913	오하(Оха)
10	포로나이스키(Поронайский)	21,788	포로나이스크(Поронайск)
11	세베로-쿠릴스키(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2,587	세베로-쿠릴스크(Северо-Курильск)
12	스미르니홉스키(Смирныховский)	12,003	스미르니흐(Смирных)
13	토마린스키(Томаринский)	7,968	토마리(Томари)
14	티몹스키(Тымовский)	14,522	티몹스코예(Тымовское) 마을
15	우글레고르스키(Углегорский)	18,253	우글레고르스크(Угледорск)
16	홀름스키(Холмский)	37,877	홀름스크(Холмск)
17	유즈노-쿠릴스키(Южно-Курильский)	11,250	유즈노-쿠릴스크(Южно-Курильск)
주도(州都)			
18	유즈노-사할린스크(Южно-Сахалинск)	201,985	유즈노-사할린스크(Южно-Сахалинск)

4.3 교육

2017년 현재 사할린 주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162개의 취학 전 교육기관들이 있으며, 164개의 초·중·고에서 55,869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사할린 주에는 2개의 고등교육기관과 2개의 분교가 위치한다.

<표 11> 사할린 주의 고등교육기관 현황(2017년 기준)

학교 명칭	설립연도	국립/사립	학생 수	위상	위치
사할린국립대학교(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949	국립	4856	대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인문-기술대학(Сахалинский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1991	사립	729	단과대학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철도교통대학(하바롭)	1961	국립	1753	단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크의 극동국립교통대학교 분교)				대학	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키대학(모스 크바의 플레하노프 러시아 경제대학교 분교)	1991	국립		단과 대학	유즈노-사할 린스크

<그림 20> 사할린국립대학교



5. 문화

5.1 문화개관

사할린 주에 위치한 언론사는 사할린 국영방송국과 「소비에트 사할린」지(紙), 「구 베른스키예 베도모스티」지(紙)가 있다. 문화·예술 기관으로는 사할린 주 예술박물관과 체호프 국제극장 등이 있다. 사할린 주에는 관광산업도 매우 발달하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 60여개가 넘는 관광회사가 성업 중이다.

5.2 문화 유적과 관광지

1) 사할린 섬

북해도에서 50km도 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할린 섬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남쪽의 절반을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동서 냉전으로 사할린은

면 곳이 되었다. '망향의 섬'이라고 불리며 참배를 제외한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곳이었으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으로 개방되어 지금은 누구나 갈 수 있다.

사할린 섬은 자연의 보고로 도시를 벗어나면 계류가 흘러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다. 겨울이 되면 남쪽에서 날아오는 겨울 철새들의 서식지가 된다. 온천으로도 유명한데 온천요양시설도 충분하다. 사할린의 관문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이다. 남북으로 긴 사할린에는 철도가 있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역이 출발역이다. 북(北)사할린 방면으로는 철도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노글리키까지 매일 야간열차가 운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사할린 주의 주도로 인구는 약 18만 명이다. 일본 통치시대의 이름은 고코하라(豊原)였으며, 수수야 강변 저지에 위치한다.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철도의 동쪽이 시의 중심이다. 지금은 향토박물관과 시립미술관으로 쓰이는 일본 시대의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림 21> 사할린 섬



2) 홀름스크 시

사할린 남서안의 항구도시로 인구는 약 5만 2천명이다. 러시아어로 '언덕'을 의미하는 이 도시의 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북쪽으로 90~100km 거리에 있다. 차로 가면 북(北)홀름스크 역 앞이 도시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 견학은 항구에서 시작하여 남(南)홀름스크 역 방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일본 통치시대의 제지공장은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지 콤비나트'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2> 홀름스크 시의 전경



3) 코르사코프 시

사할린 남쪽 관문인 코르사코프는 아니바 만의 로소세이 갑(岬)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남쪽으로 약 45km 지점이다. 인구 약 4만 6,000명이며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생기 넘치는 항구이다. 주된 산업은 어업으로 주민의 4분의 1이 고기잡이에 종사하고 있다. 볼거리로는 항구의 전경과 옥탸브르스카야 거리가 꼽힌다. 오호츠크 해에 면한 아름다운 호수인 츠나이차 호수에 가보는 것도 좋다. 오호츠크 해까지 코르사코프에서 37km이며, 차로는 약 50분 거리이다.

<그림 23> 코르사코프 시



4) 유즈노-사할린스키 지역학박물관

일본의 통치시대인 1937년에 건설된 지역학박물관이다. 석조건축물로 전통적인 일본의 성(城)을 연상시킨다. 사할린의 자연, 역사, 경제, 문화와 관련된 약 8만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고 있다. 1층은 자연의 보고인 추레니 섬이나 오호츠크 해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태, 사할린을 비롯한 천여 개 섬의 역사나 소수민족의 생활, 아이누인의 자료가 있다. 북위 50도선의 일본과 러시아의 옛날 국경에 위치한 표지석도 있다.

2층은 20세기 이후 사할린 역사를 중심으로 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정원에는 러일전쟁에서 사용된 양국의 대포들이 늘어서 있다. 또한 오하, 노글리키에도 분관이 있다. 관람시간은 11:00~18:00이다. 화요일은 17:00까지, 월요일은 휴관이다.

<그림 24> 유즈노-사할린스키 지역학박물관



5) 사할린 예술박물관

1983년에 개관한 사할린 예술박물관은 일본의 옛 척식은행 건물이다. 현재는 미술관으로 사할린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미술공예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11,500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관람시간은 10:00~18:00이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이다.

<그림 25> 사할린 예술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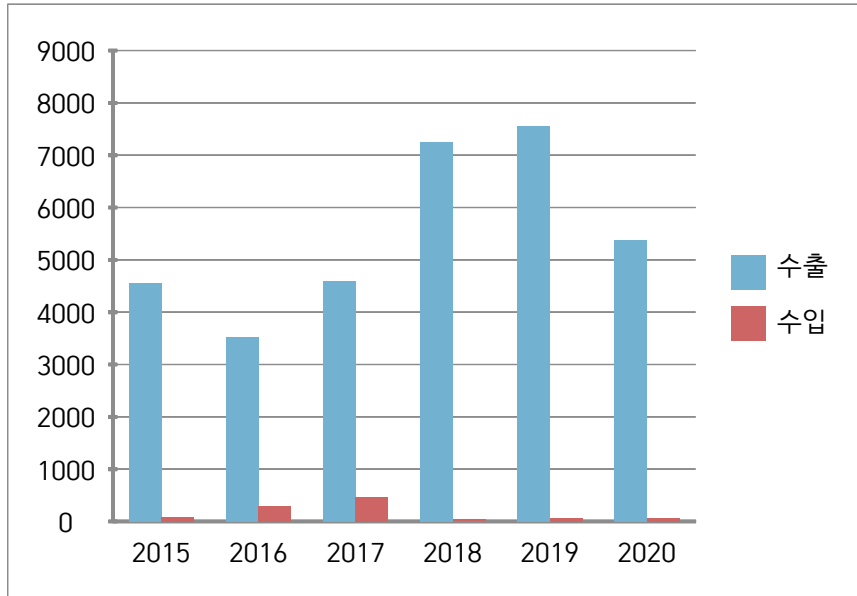


6. 한국과의 관계

6.1 한국과 사할린 주와의 경제교류

[그림26. 사할린주 대(對)한국 수출입구조(2015~2020년)]

(단위: 백만달러)



출처: <https://ru-stat.com/date-M202001-202012/RU64000/export/KR>(검색일:2021.12.3)

[표12. 사할린주 대(對) 한국 수출 품목(2020년)]

(단위: 백만달러)

교역 품목	교역액	전년대비 증감	비중
광물 제품	5,010	70.96%	92.1%
동물성 제품	310	79.90%	6.1%
금속 제품	32.5	64.87%	0.6%
기계장비	24.6	25.84%	0.5%
⋮	⋮	⋮	⋮

출처: 위의 자료(검색일:2021.12.3)

2020년 사할린주의 대(對) 한국 교역량은 약 54억 400만 달러로, 사할린 주의 주요 교역국 중 44.5%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러시아 연방의 대(對)한국 교역량 전체에서 사할린 공화국은 27.8% 점유율을 보이며, 러시아 85개 연방 주체 중 1위에 위치했다. 주요 교역 품목으로 석유 및 가스가 포함된 광물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동물제품 그리고 금속 제품이 뒤를 잇는다. 2020년 사할린의 대외무역액 전체가 줄어 들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품목에서 전년대비 감소했다. 또한 사할린은 전형적으로 무역 흑자를 보는 연방주체로 대(對) 한국 교역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흑자를 보였다.

6.2 사할린 주의 고려인

사할린의 기후는 생활에 불리하지만 석유와 석탄의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광산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서 광산근로자를 모집 또는 강제 징용하여 끌고 갔다.

사할린 주의 한인(고려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으로 인해 약 15만 명이 강제동원되었다가 2차 대전 말기에 10만 명이 일본으로 재배치됨에 따라, 1945년 잔류 인원은 약 4만 3,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에는 3만 5,191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사할린 전체 인구(70만 명)의 5%에 해당하였다. 2002년 러시아 비공식 인구조사에 따르면 3만 378명의 한인이 거주했고, 2005년에는 한인 1세 인구만 3천 547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1992년부터 추진된 영주귀국사업으로 2007년까지 2,221명의 한인 1세가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였다.

2008년 '지구촌동포연대'가 조사한 사할린 한인(고려인) 규모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1만 6천 명, 홀름스크에 3천 100명, 코르사코프에 2천 700명, 포로나이스크에 2천 500명 등으로 전체 2만 8,260명이 거주하고 있다. 1938년부터 강제로 사할린에 이주된 대부분의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은 사망하였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 두 차례에 걸쳐 영주 귀국이 있었으나 그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1938년부터 강제로 사할린에 이주된 대부분의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은 사망하였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 두 차례에 걸쳐 영주귀국이 있었으나 그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해야 하는 문제가 한국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림 26> 사할린의 한인들



6.3 한국과 사할린 주의 교류현황

2010년 기준으로 사할린 주에 있는 재외국민 수는 130여 명이고, 고려인 수는 3만 명이다. 주요 한인단체는 사할린주한인회, 이산가족협회, 사할린주노인회, 사할린주한인영주귀국촉진회 등이다. 1992년 1월 17일 사할린 주는 제주도와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2013년에는 부산과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7년에는 문경시의 주요 인사들이 제 2회 사할린아리랑제에 참여하는 등 사할린 주와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사할린 주의 재외국민은 90여명 한인 동포는 2.6만명 정도 된다. 한인회와 관련한 주요 단체는 다음과 같다.

단체명	회장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협회	박경춘
사할린주 노인회	김종길
사할린한국한인회	현덕수

■ 주요 인사 방문

- 2004년 6월 Malakhov 사할린 주지사 방한
- 2004년 7월 박동순 동서대 총장 사할린 방문
- 2006년 7월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 방문(영주귀국사업)
- 2006년 9월 김원웅, 김무성 국회의원, 고은 시인 사할린 방문
- 2008년 7월 한일 기독교의원연맹 사할린 방문(김영진 대표회장, 황우여 공동회장)
- 2010년 4월 Khoroshavin 주지사 방한(국무총리, 외교부 제1차관 면담)
- 2010년 7월 황우여, 박진, 박순자, 김영진, 박선영 국회의원 방문
- 2010년 10월 Ivanov 부지사 방한(제주도 등과 MOU 체결협약)
- 2011년 5월 독도특위의원단 사할린 방문(강창일, 장세환, 문학진 의원)
- 2014년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원유철, 김성곤 의원) 방문
- 2004년 9월 울산광역시 중구청 대표단 방문(네벨스크시와 우호교류협정 체결)
- 2015년 4월 대전광역시 대표단 방문(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 2015년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단(김춘진 위원장, 이명수 의원, 김성주 의원) 방문
- 2016년 4월 임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방문
- 2016년 7월 강원도 교육청 대표단 방문(사할린주와 교육분야 협력 MOU 체결)

- 2019년 3월 북방경제원정단(송영길·박정·정재호 의원 등)
- 2019년 3월 이종걸·이상민 의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 2019년 8월 국회 외통위 대표단(윤상현 위원장, 김재경·이정현·정양석·박정 의원)
- 2019년 8월 국회 교육위원회(이찬열 위원장, 김한표·서영교·곽상도·박경미·박용진·전희경 의원)

■ 주요 행사

- 2003년 6월 사할린 KBS 라디오 한민족노래자랑대회
- 2003년 10월 사할린 거점도시사업 및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국 영화제 개최
- 2004년 7월 한·일·러 국제학술심포지움
- 2004년 9월 국립국악원 전통예술단 공연
- 2006년 9월 사할린 한인선열 위령제
- 2008년 4월 사할린 한복패션쇼 및 전시회
- 2008년 7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수도순례 및 유골실태조사 실시
- 2007-2010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설명회(연간)
- 2010년 7월 국제심포지엄(사할린동포 실태조사 계기)
- 2013년 7월 부산국제교류재단 사할린주 설명회
- 2013년 10월 제1회 사할린 한국주간 페스티벌
 - 2014년 7월 극동시베리아 연구 학술회의(한림대, 사할린국립대, 한러민간외교협회 공동 주최)
- 2015년 8월 2015 사할린 한민족 큰잔치(KBS 한민족방송 주최)
 - 2015년 8월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러시아와 대한민국-역사적 조망과 현대성의 도전’)(사할린주정부, 사할린경제법률정보대학 주최)
 - 2015년 10월 러 전승 70주년 및 한러수교 25주년 기념 제2회 사할린 한-러 상호 이해 및 우호 축제(‘한-러 우호 열풍’)
- 2016년 8월 KBS <전국노래자랑> 사할린 예선
- 2019년 3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주최)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도시 현황

- 1992년 1월 17일 사할린주와 제주도 간 자매결연협정 체결
- 2003년 안산시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간 자매결연협정 체결
- 2010년 8월 삼척시-코르샤코프시 자매결연 체결
- 2015년 울산광역시(중구청)와 네벨스크시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 한국 연결 직항로

- 사할린 ↔ 인천 간 주 1회 특별기 운항(2021.8월 기준)

<참고문헌>

극동 시베리아 개항, 2011. 4., 외교부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terms.naver.com/entry>.

<http://www.upkorea.net/news/>

<http://www.neargov.org/>

<http://www.adm.sakhalin.ru/>

<http://www.kita.net/>

<http://koreaexim.go.kr/>

<http://www.kotra.or.kr>

<http://www.google.co.kr/>

<http://www.ruscis.kr/>

www.world-climates.com

www.cia.gov

<http://www.mofat.go.kr/>

<http://www.yandex.ru/>

<http://www.wikipedia.org/>

<http://www.rus-maps.com>

<http://www.itar-tass.com/g71/1535.html>

<http://www.lenta.ru/news/2011/12/13/mandaty/>

<http://rus-vladivostok.mofat.go.kr>

<https://tonkosti.ru>

<http://sakhalin-znak.ru>

<http://commons.wikimedia.org/wiki>

<사진출처>

구분	출처
표지1	http://www.vladtime.ru/2016/03/23/banki-yaponii-predostavili-so-deco-900-mln-na-proekt-sahalin-1.html
표지2	http://world-of-travel.com/wp-content/uploads/2015/12/Ostrov-moneron.jpg
표지3	http://www.domotdiha.ru/ru/routes/aleksandrovsksakhalinskiy-ekhov-i-plyazh-145
표지4	http://smartnews.ru/regions/sahalin/13172.html
서문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c/Treaty_of_Portsmouth.jpg
서문2	https://ru.wikipedia.org/wiki/
서문3	https://www.lookandtravel.ru/ostrov-saxalin/
서문4	http://detsadradost.ru/rabota-na-sahaline-ribak-pribrezhnogo-lova.html
서문5	http://detsadradost.ru/rabota-na-sahaline-ribak-pribrezhnogo-lova.html
1	http://every-island.blogspot.kr/2015/05/121-sakhalin.html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0743&contentsParamInfo=isList%3Dtrue%26navCategoryId%3D33294&cid=40942&categoryId=33294
3	http://www.the-liberty.ru/55/sahalin-priroda-v-kartinkah-468.html
4	http://domiskusstva.ru/blog/kurily-kurily-a-kakie-oni-kurilskie-ostrova-vo-vsej-svoej-krase/
5	http://popgun.ru/viewtopic.php?f=166&t=620866&start=150
6	http://www.mnr.gov.ru/multimedia/photogallery/?PAGE_NAME=detail&SECTION_ID=1100&ELEMENT_ID=98538&sphrase_id=912941&spetial=Y
7	http://wmc.meteoinfo.ru
8	http://wikitravel.org/upload/en/thumb/5/57/Flag_of_Sakhalin_Oblast.svg/1024px-Flag_of_Sakhalin_Oblast.svg.png
9	http://www.dorogavrim.ru/gerbi/gerbi_gorodov/
10	http://sakhalinmuseum.ru/news_559.php
11	http://pda.fedpress.ru/news/polit_vlast/news_polit/1429073896-kozhemyako-zarabotal-bolee-95-milliona-za-proshlyi-god
12	http://www.dumasakhalin.ru/general-data/leaders
13	http://sakhalin.er.ru/news/2016/5/22/podvedeny-obshie-itogi-predvaritelnogo-golosovaniya-v-sahalinskoj-oblasti/
14	사할린 지역 경제 개발부
15	http://sakhvesti.ru/toprint.php?div=skr&id=143485

16	http://thecoolimages.net/sakhalin+project?image=433478572
17	http://argumentua.com/novosti/exxonmobil-vyidet-iz-investproekt-ov-v-rf-v-sluchae-rasshireniya-sanktsii
18	사할린 지역 개발원
19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akhalin_oblast_Regions.png
20	http://sakhalin-znak.ru/sah_gu_med1?search=%20&page=101
21	http://greenword.ru/2011/08/sakhalin.html?%11%1B%04
22	http://kholmsk.ru/photo/40942
23	https://www.cruisegid.ru/cruise-ports/Korsakov.html?sortBy=likeDislike&sortdir=DESC&sorttype=intege
24	https://tonkosti.ru/
25	http://www.ybs.ru/mincult/museums/images/ShOHM1.JPG
2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8947&cid=46634&categoryId=46634
27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img.php?img=116084
28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85569#07Pk

<표 출처>

구분	출처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1507&cid=43860&categoryId=43864
2	https://ru.wikipedia.org/wiki/
3	https://ru.wikipedia.org/wiki/
4	http://2015-2016.vybor-naroda.org/lentanovostey/89404-edinaya-rossiya-vyigrala-vybory-na-sahaline-i-kurilah-s-pochti-44-golosov.html
5	http://www.gks.ru
6	극동 시베리아 개항, 2011. 4., 외교부
7	http://www.wikipedia.org/
8	http://mineconom.admsakhalin.ru/?page=301
9	https://ru.wikipedia.org/wiki/
10	https://ru.wikipedia.org/wiki/
11	https://ru.wikipedia.org/wiki/